

LG화학, 임원 스톡옵션 56만주 부여

2008-12년 행사가격 4만2530원 ... 노기호 · 유철호 사장 17만 · 7만주

LG와 LG전자에 이어 LG화학도 임원들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다.

LG화학은 3월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노기호 사장 등 임원 13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LG전자와 LG가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LG화학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발행주식 총수의 1%인 56만8000주로 행사가격은 주당 4만2530원이며, 행사기간은 2008년 3월26일부터 2012년 3월25일이다.

부여 주식수는 노기호 사장이 가장 많은 17만주, 화성사업본부장 유철호 사장 7만주, 김건식 사외이사 7000주 등이다.

부여방법은 차액 현금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지 않으면 받은 스톡옵션의 50%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성과연동형으로 LG전자나 LG와 같다.

LG화학은 또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1만5186주(6억1000만원)를 처분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5/03/28>